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가 다각적인 기후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대처해온 방법을 포함하여, 2019년 NPCC 특별 보고서 이후 기후 정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뉴욕시의 노력에 대한 개요를 소개합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뉴욕시의 기후 문제를 이 지역의 식민지배, 토지 소유권 박탈, 노예제도의 역사와 연결합니다. 이 장은 과거와 현대의 토지 이용 패턴과 결정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를 포함한 기후 위기와 사회적 취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챕터 핵심 내용:**

1. **2019년부터 뉴욕시의 기후 관련 형평성 작업은 법률 및 프로그램 채택, 더 많은 시 정부 서비스 제공, 뉴욕시의 현재 진척상황을 추적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공 대시보드 구축, 형평성 접근과 기후 위험 평가, 지속가능성 및 복원력 계획의 통합을 통해 환경 불공정과 인종 격차를 해소하는데 보다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9년 NPCC보고서 발간 이후 뉴욕시의 형평성 계획은 처음에는 환경 정의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나중에는 인종 정의와 기후 정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뉴욕시의 노력은 사회적, 인종적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것은 인종 형평성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단계로 구조적 인종주의가 건강, 소득, 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유산과 지속적인 영향을 명시적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2. **뉴욕시의 기후 관련 정의 활동은 지역 수준에서 세분화된 기후 위기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데이터와 시에서 후원하는 기후 적응 프로젝트 및 복원력 투자에 대한 추적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과 적응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이며, 시에서 후원하는 적응 프로젝트와 복원력 투자에 대한 데이터도 제한적입니다. 보다 지역화된 기후 위험 데이터와 시에서 후원하는 기후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은 주민들에게 그들의 거주지와 지역사회에서의 기후 변화 영향과 적응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뉴욕시의 가장 소외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경, 기후 및 사회적인 요인 등 다양한 위험과 맞서는 역동적인 접근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태양열 에너지에 대한 접근 확장과 더위와 대기 오염에 노출된 가정에 대한 냉방 제공을 포함합니다.
4. **뉴욕시의 기후 문제는 노예제도와 토지 수탈 등 이 지역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역사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기후 영향을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기후 영향이 지역과 특정 커뮤니티에 미친 역사적 유산에 대한 인식은 배상 및 회복적 정의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지역 고유의 지식을 인정하고 토지와와의 관계를 재개념화함으로써 환경을 존중하고 사회적, 인종적 정의를 증진하며 모든 공동체의 안녕을 보장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뉴욕시는 기후 완화, 적응, 회복력 전략에서 인종 형평성 결과와 절차를 촉진하여 기후 위기와 사회적 취약성을 높이거나 영속화하는 불평등한 토지 이용과 시장 패턴을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의 토지 사용과 기후 위기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과거의 차별적인 토지 사용 및 입지 결정, 대출거부와 투자철회, 위험에 취약한 지역의 낮은 토지 비용 등 유사한 근본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토지 이용 문제들은, 과거나 현재 할 것 없이 서로 악화시키며 미래의 위험과 취약성을 야기합니다.
6. **뉴욕시는, 기후 이주와 사회적 취약성 통합 점수 체계(CDSV)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의 중요한 지표인 기후 이주와 젠트리피케이션을 살펴보고 이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수준에서 기후 이주의 위험을 측정하는 뉴욕시의 능력은 뉴욕시가 기후 영향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위해 설계된 새로운 인프라와 투자가 사람들의 이주를 유발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이주 방지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력 증진 투자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기후 적응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역사회 주도의 기후 복원력 접근 방식을 우선시 하는 것입니다: (1) 맥락적 형평성을 통합하고 동네 수준까지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 (2) 주택 및 대중교통 접근성과 같은 기후 영향과 겹치는 문제를 포함하여 기후 충격에 대한 인종화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 (3)기후 적응에 따른 비용 부담(예: 에너지 비용 증가, 보험료, 이주)은 특히 주택 소유와 빈부 격차를 고려할 때 사람들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이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



8. **뉴욕시 주변과 전세계의 모범 사례들은 기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반인종주의적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보다 공정하고 인종적으로 정의로운 기후 적응 접근법을 위해 확인된 모범 사례의 세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로운 전환과 적응 경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모색하는 기후 회복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 (2) 주택과 기후 이주 위험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적응 계획을 더욱 성공적으로 만드는 지역사회 주도 계획 프로세스; (3) 지역사회, 시민단체, 주 및 지방 정부 기관과 프로그램 간의 관계를 활용하여 목표, 프로그램, 정책을 협력적으로 개발하는 것.

## 요약

뉴욕시 기후 적응 전략에서의 기후 정의 증진에서는 NPCC3의 연구 결과와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기후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뉴욕시의 노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는 2019년 이후 기후 적응에 형평성과 공정함을 통합하려는 뉴욕시의 노력을 평가하고 뉴욕시 지역사회가 서로 교차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기후 및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접근법을 구현한 방법을 강조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 지역의 식민지화와 토지 수탈의 역사,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토지 이용 패턴과 결정이 현재 진행중인 기후 위기 및 이주와 같은 사회적 취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권장 사항 중 하나는 뉴욕시에 초점을 맞춘 지표로, 기후 이주와 사회적 취약성 점수(CDSV)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지표는 도시에서 기후 위험, 사회경제적 격차 및 이주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권장되는 점수 산출 방법은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특정 인구의 취약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동네 단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보다 통합적이고 공정하며 인종적으로 정당한 지역사회 중심의 기후 복원력 접근법을 우선시 하는 지역, 국가 및 국제적 맥락에서 도출된 모범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챕터 저자:

Sheila R. Foster, Ana Baptista, Khai Hoan Nguyen, Jack Tchen, Marco Tedesco, Robin Leichenko

## 감사의 글:

코넬대학교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리서치그룹이 이 요약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요약안을 이끌어 준 대학원 부학장 Josephine Martell박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Katherine McComas박사, 강사 Catherine Lambert박사, 연구자 Dominic Balog-Way박사, 박사 후보 Alisius Leong, 박사생 Rebekah Wicke에게 감사드립니다.

## 추천 참고 문헌:

Foster, S., Baptista, A., Nguyen, K. H., Tchen, J., Tedesco, M., Leichenko, R. (2024). NPCC4: Advancing Climate Justice in Climate Adaptation Strategies for New York City: Summary  
[www.climateassessment.nyc](http://www.climateassessment.nyc)